



음대 소식

2010
10
Vol. 007

발행인 : 정 태 봉 | 발행처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TEL : 02)880-9320 | FAX : 02)882-9320 | 발행일 : 2010년 10월 1일

Vol. 007 / October 2010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7호

학장 인사말

관악에 또 다시 가을이...



참 비가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햇빛을 봤던 날이 얼마나 되는지... 습도가 높으니 자연히 무덥기도 해서 짜증나는 날도 참 많았지요. 거센 바람을 몰고 한반도의 가운데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도 있었고, 이제는 가을이다 했던 추석 전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명절을 보내기도 했지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편지 않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관악에 또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음대 소식지는 10월 1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음대의 제 26회 정기 오페라 공연에 관한 기사를 다음호로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의전당〉이 ‘대학오페라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주최했는데, 우리 음대가 여기 참가하여 지난 9월 9일(목)에서 11일(토)까지 3일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모두 4회(토요일 2회 공연)의 공연을 했던 바 있습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우리 음대의 제 26회 정기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대회 공연 마다 대성황을 이루었고 특히 마지막 공연 때엔 입장권이 매진되는 일이 벌어져 〈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요. 대학생들이 하는 오페라 공연에 전석매진이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다하는 전문 오페라단의 공연에서도 전석매진이라는 일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니까 말입니다. 한편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하 역시 서울대로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인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반 음악애호가들의 뇌리에 우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이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님 내외분께서도 10일 공연을 관람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뛰어난 기량에 감탄하셨고, 개교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중에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다시 공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서울대학교를 사랑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대학오페라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을 비롯해서 지난 3월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음대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 태 봉

목 차

- 01 학장님 인사말씀
- 02 음대주최 주요행사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2010학년도 가을학기 예정 행사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03 화요음악회
 - 연구소 소식
 -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 04 대학오페라페스티벌 서울대학교 '라 트라비아타'
 - 박세원 교수, 박혜상, 김희재, 김광현 인터뷰
- 08 슈만페스티벌 & 쇼팽, 온 다
 - 최희연 교수, 윤지연 인터뷰
- 09 시각장애인 김상현군(피아노 전공)인터뷰
- 10 쿵쿠르 입상자 인터뷰
 - 이명현, 공유림
- 11 음악대학 단신
 - 백정심 교수의 SNU Cell Ensemble
 - 김영옥 교수의 Summer Music Academy
 -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 서울대학교 학부모 조형행사
 - 음악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 홈페이지 새 단장
 - 학교통합사무실 신설
 - 음악대학 인사(2010년 3월 이후)
 -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
 - 삼익악기 회장 감사패 수여식
 - 발전기금 출연
- 14 교수동정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16 쿵쿠르입상자
 - 서울음대발전기금
 - 서울음대 프렌즈

음/대/주/최 주/요/행/사

2010. 3. 1 ~ 2010. 9. 30

성악과

- 3월 10일 : 개강 음악회 & 신입생 환영 음악회
- 3월 19일 : 신입생 환영회
- 3월 29일 : 제26회 정기오페라 오디션
- 4월 5일 ~ 4월 7일 : 성악과 세미나
- 4월 24일 : 학부모 초청행사
- 4월 27일 : Master Class - Renato Bruson
- 4월 29일 ~ 5월 1일 : 졸업여행
- 5월 17일 ~ 19일 : Schumann Festival (Master Class)
- 5월 19일 : Master Class - Cheryl Studer
- 5월 20일 : Schumann Festival (Liederabend (Dichterliebe / Frauenliebe und leben))



195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2년마다 선보이며 대학오페라의 선두 자리를 지켜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의 정기 오페라공연이 9월에 열린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이 공연은 예술의 전당을 대표하는 기획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학오페라페스티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9개 대학교와 함께 9개의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미래 음악계를 이끌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하고, 오페라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9월 9,10일(7시 30분) / 11일(3시, 7시30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작곡과

STUDIO 2021 (2010 SPRING SEASON)

• Guest Composer's Week 박영희 (Younghi Pagh-Paan)

- <박영희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동서양 문학과 종교적 영성에 관하여>
- 5월 3일 : Lecture
- 5월 4일 / 6일 / 7일 : Composition Lessons

• Performer's Studio I E-Mex Ensemble

- 5월 18일 : Lecture Concert
- <New Sounds, New techniques, New

possibilities of composition>

• Performer's Studio II MD7 Ensemble

- 5월 27일 : Lecture Concert <Four Perspectives of Seven Musicians>

SUMMER ACADEMY - With SNU Composers

- 6월 7일 ~ 12일 : Workshop & Lesson
- 6월 15일 : Concert
- 6월 16일 : Composition Lessons
- 6월 17일 : Lecture Concert



STUDIO 2021 (2010 AUTUMN SEASON)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서울대학교음악대학 STUDIO2021 공동주최 <Festival ACCENTO> - 부제 : 2010 디베르티멘토?

- 9월 11일 : 실내악 연주회
- 9월 17일 : 관현악 연주회

기악과

▶ 피아노 전공

- 5월 17일 ~ 20일 : 슈만페스티벌

▶ 현악, 관악 전공

- 3월 23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4월 2일 : Master Class - Kai Rapsch (Oboe, Engl. Horn)/ Laszlo

- Kuti(Clarinet)/Bence Boganyi(Bassoon)
- 4월 13일 : Master Class - Michael Wolf(Contra Bass)
- 4월 30일 : Master Class - Elizabeth Hainen(Harp)
- 5월 1일 : Master Class - Jeffrey Lang (Horn)/ Carol Jantsch(Tuba)/ Jeffrey Curnow(Trumpet)
- 5월 10일 : Master Class - Jamie Laredo(Violin)
- 5월 11일 : Master Class - Sharon Robinson(Cello)
- 5월 12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5월 13일 :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
- 5월 13일 : Master Class - Philip Muller (Cello)
- 5월 28일 :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
- 5월 28일 : Master Class - Lucie Robert (Violin)
- 6월 1일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6월 4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 6월 16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국악과

- 3월 3일 : 신입생연주회
- 3월 5일 : 신입생 환영연주회
- 4월 24일 : 학부모 초청의 날 연주회
- 5월 7일 : 봄정기 연주회
- 9월 8일 : 관악사 개관연주회
- 9월 9일 : 제9회 국내학술대회

2010학년도 가을학기 예정 행사 2010. 10. 1~

▶ '2010 쇼팽, 온 다'-쇼팽의 신화와 실제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폴란드 음악가 프레데릭 쇼팽(1810-1849)의 음악세계를 조명하는 쇼팽국제학술행사가 10월부터 약 3주간 우리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철학, 음악학, 역사학,

미술, 공연예술 등의 전문가들과 국제적 명성을 지닌 학자, 예술가 및 연주가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음악대학-미술대학-인문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0 쇼팽, 온 다'는 쇼팽과 그의 음악에 대한 종합적 탐구의 장이 될 것이다. 또 이 행사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연주회가 시도되며,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학술-공연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일정

- 10월 11일~13일 Chopin in the Campus 1~3
- 10월 18일 연극 (쇼팽과 조르주상드)
- 10월 19일, 21일 Chopin in the Campus 4, 5
- 10월 21일 특강 (John Rink)
- 10월 22일 독주회 (Sa Chen)
- 10월 23일 특강 (John Rink) 및 학술대회
- 10월 25일~28일 마스터클래스
- 10월 28일 Chopin in the Campus 6
- 독주회 (Piotr Paleczny)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지난 9월 '2010 예술의 전당 대학오페라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마지막날 전석매진의 기록을 세운 '라 트라비아타'가 서울대학교 문화관대강당에서 10월 26일, 27일 재공연 될 예정이다.

기악과

현악, 관악 전공

- 11월 10일 : SNU 관악합주단 정기연주
- 11월 18일 :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25일 :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
- 12월 12일 :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국악과

- 11월 11일 : 국악정기연주회
- 11월 18일 : 국악과 제52회 정기연주회

2010년 1학기 서울대인과 관악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

1회 | 모모로오노 독주회

일시: 5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회 | Schumann Festival

일시: 5월 18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3회 | 앙상블 소아베, 브람스와 쇼스타코비치

일시: 5월 25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회 | 바이올리니스트 KoN과 함께 하는 집시음악여행

일시: 6월 8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5회 | SNU Chamber Orchestra "Major in Music"

일시: 6월 15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소식이 홍보된 지면들

• 서울대학교본부 홍보팀에서 발간하는 '서울대 사람들' Summer 2010 / 22권 p.14~15
 제목: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발간하는 'SNU Noblesse Oblige' 13권 p.18~19
 제목: '사회를 향한 희망의 앙상블'

연구소 소식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제9회 국내학술회의 개최

- 일시: 2010년 9월 9일
-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대강당
- 주제: 시간을 공간에 담다 - 국악의 채보와 기보
- 발표자: 박미경(계명대 교수), 김해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 현(부산대 교수), 권도희(서울대 강사), 김수미(서울대 강사)
- 지정토론자: 김영운(한양대 교수), 이태원(작곡과), 이지영(서울대 교수), 신대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2월 중, 동양음악연구소 학회지 <동양음악 32집> 발간예정.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1. 정기 학술대회: 음악사 주요작품연구 시리즈 V

- 일시: 2010년 4월 24일
- 장소: 시청각실
- 좌장: 신인선(음악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논문 발표:
 - 서정은(가톨릭대학교 강사) "바흐, 마테오 수난곡"
 - 송무경(연세대 교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고별 op. 81A"
 - 김 연(홍콩대 교수) "푸치니, Una Turandot attraverso il cervello moderno"
- 질의 및 토론: 이가영, 최희연, 안소영, 박승희, 김미영, 이용숙

2. 서양음악연구소 새총서: 음악사 주요작품연구 시리즈 발간

- 신인선 저, 드뷔시 바다, 음악세계, 2010.
- 권송택(한양대 교수) 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 장조 K. 453, 음악세계, 2010.

3. 초청 특강

- (1) 일시: 2010년 3월 19일
 강사: 헤르만 고체프스키
 (Hermann Gottschewski, 동경대 교수)
 주제: The role of synthesis in performance theoretical studies
- (2) 일시: 2010년 4월 9일
 강사: 우혜언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주제: 동독음악은 존재하는가?
- (3) 일시: 2010년 5월 14일
 강사: 힐러리 핀첨성 (서울대 교수)
 주제: 현대음악인류학 연구

4. 렉처 콘서트

- (1) 일시: 2010년 3월 26일
 강연 및 피아노: 쿠르트 자이버트
 (Kurt Seibert, 독일 브레멘 음대 교수)
 주제: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 (2) 일시: 2010년 5월 19일
 강연 및 리코더: 잉그리트 브라이텐펠트
 (Ingrid Breitenfeld, 독일 브라이스가우 음악학교 리코더 교사)
 주제: 리코더의 장식음

5. 연구보고서 발간

- 정혜윤(서울대 강사), 평론문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하이든 수용, 2010.

《오페라연구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는 서울시오페라단과 연계하여 여름 방학기간을 통해 나눔오페라를 공연하였다. '세비야의 이발사', '돈파스칼레', '마농레스코' 등을 공연했으며 우리 성악과 학생들이 주역 및 조역을 맡았다.

- 4월 22일 ~ 25일: 오페라 <마농레스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5월 25일 ~ 26일: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시청광장
- 6월 23일 ~ 27일: 오페라 <돈 파스칼레>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 그 외 관악문화원, 중랑구청, 도봉문화회관 등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 트라비아타>, <세비야의 이발사> 등을 8회 공연 함.

2010 예술의전당 대학오페라페스티벌 서울대학교 '라 트라비아타'

박세원 교수 인터뷰
박혜상, 김희재, 김광현 인터뷰



1959년 국립극장 무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학오페라의 선두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우리음대의 정기오페라 공연이 지난 9월 9일 (목)부터 11일(토)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예술의 전당을 대표하는 기획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학오페라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형식이였다. 이 '대학오페라페스티벌'에는 모두 3년에 걸쳐 9개 대학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는데, 우리 음대는 첫 해인 올해 '라 트라비아타'로 참가하여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우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세원 교수의 총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전 스텝진이 하나 되어 이룬 결과이다. 그 감동과 잊을 수 없는 열기의 중심에 있었던 박세원 교수와 첫 날 공연의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INTERVIEW〉

■ 박세원 교수 (총감독)

1. 이번 오페라공연을 끝내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느끼신 점을 듣고 싶어요.



그동안 수많은 오페라에 참여하고, 감독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오페라는 특히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준비하는 시간 내 행복했습니다. 오페라를 공부하는 학생

들에게 공연경험이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선생인데 우리 음대에는 오페라 연구소가 있어서 이를 통해 평소 학생들이 오페라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님들의 노력과 무대경험이 많은 학생들의 조화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고 학생들의 월등히 뛰어난 기량을 보는 것은 참으로 뿌듯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2. 이번 공연에서 짚어낼 수 있는 특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성오페라단의 공연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만석공연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왔는데 관객의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어른들의 소유라는 느낌이 강해서 중장년층의 참여가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대의 성악가들이 출중한 실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번 공연이 확실한 그 예를 보여 주었습니다.

3.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요?

예술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과정 중에 많은 배움과 도움을 받지만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곧 실전무대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느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페라는 '종합예술' 이어서 이 안에는 많은 장르의 예술이 하나 되어 녹아있어요. 성악만이 아니라 기악, 무용, 문학 등등 많은 분야가 서로 하나 되어야 오페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자신의 실전 경험치를 높이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이 모든 관련분야의 교

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려면 지금의 2년에 한 번보다는 1년에 한 번으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번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악을 평생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주세요.

우리나라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성장을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근성이 뛰어난 민족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잘 배우고 새롭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외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마음과 세계 어디에도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하는 현상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셔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사회에 나가 프로로서 실전 무대를 겪으며 얻어내고 배우는 것 또한 굉장히 실속 있는 경험 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평생을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려 마음먹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연습기간이 학생들이 동료 음악인들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항상 남보다 잘 해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더 치열한 분야가 예술이기에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은 연습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맞추어가고 서로 이해하며 푹푹 묻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각자의 인성과 사회성이 귀하게 길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저 사람과 정말 공연하고 싶다', '저 사람은 이 공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듣는 성악가들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음악이라는 것은 대결이 아닌 감동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도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는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또는 ‘음악을 좀 알고 와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준비해야 할 모든 과정을 이미 녹여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와서 접하기만 한다면 어려움 없이 빠져들어 200%까지 느끼고 알게끔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공연을 보며 쓴다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0. 9. 15.)

〈학생 인터뷰 질문〉

- Q1. 이번 오페라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Q2. 공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
- Q3. 이번 오페라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

■ 박혜상 (9월 9일 비올렛타 역)



1. 이번 오페라는 정말 저에게 상상도 못할 대단한 기회였어요.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든 잘 잡고 최대한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샀던

CD도 DVD도 그리고 악보도 모두 라 트라비아타였고 가장 하고 싶던 아리아도 이 안에 있었거든요. 라 트라비아타 DVD가 서로 다른 종류로 7종류가 있는데 하나당 100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서 저렇게 노래 하는구나’를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

는 비올렛타는 어떤 모습의 비올렛타일까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 역을 가장 하고 싶어 해서 그러한 간절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는 내내 연출자 선생님과 다른 배역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객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미세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서 짜고 더 좋은 연기를 위한 몰입의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후회가 없어요.

2. 처음 연습할 때 ‘내 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라는 걱정엔 선배님들로부터 발성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훈련되어야 하고 겪어야 할 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이 낯선 환경이라는 것과 오프닝 무대의 주역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었어요. 처음에 잘해야 앞으로의 공연도 다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공연이 전석매진이라는 소식에 정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연습기간 중 아버지께서 허리수술로 입원하셔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주일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다시 잡아가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역이어서 그런지 연습하러 가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페라 연습이 오히려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행복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이라면 경험이 많은 분들과 같이 연기한 것입니다. 주역, 조연 친구들과 합창하는 친구들 모두 든든하게 받쳐주어서 제 마음이 참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신경써주시고, 도움 주셔서 제가 참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를 보면서 제가 초대하지 않은 많은 분들까지 저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고 여러사람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때만이 가능한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공연으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 9. 17.)

3.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이번 역할을 계기로 앞으로 제가 열어갈 미래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공연 말고도 제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몰두 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무대에 서있던 그 순간에도 저는 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과 벽찬감동 그리고 스스로와의 투쟁이 공존하는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공연은 제가 더 많이 알고 닦아서 올라르고 정직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느끼게 한 귀한 연주였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해외의 무대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싶어요.

무대에서 느끼는 전율을 몸으로 체험해보았으니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을 꿈꾸어야겠어요. 더 큰 꿈을 꾸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희재 (9월 9일 알프레도 역)



1. 마지막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일반 공연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만석공연을 우리 학교가 예술의 전당의 큰 행사인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에서 해낸 것이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학생이지만 모두가 진정

한 프로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내내 저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가 되었던 이번 오페라가 평생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랄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역으로서 가지게 되는 긴장감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오페라는 팀워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즉 같이 연기하는 사람들과의 호흡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나 친구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맞추어 가느냐에 따라 참 많은 변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수고한 오케스트라 단원들, 매일 이어지는 연습에도 불평 없이 열심히 참여해준 성악과 합창단 후배들, 누구보다 수고한 성악과 학생 연출팀,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감독님, 스텝 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역으로서 느껴야 했던 중압감을 이기고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완벽한 공연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동료들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오페라 주역가수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무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점은 저 자신이 진정 오페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커튼콜 이후 박수갈채와 격려에서 오는 짜릿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도 물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음악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3. 이번 오페라는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고, 또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3시간의 공연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

고,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완벽한 힘을 발휘하는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 선생님들, 친구들, 도와주시는 많은 스텝분들의 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만큼, 마음이 하나 되는 만큼 더욱 더 수준 높은 오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과정에서는 자신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실력을 넘어서 인성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9. 17.)

■ 김광현 (9월 9일 제르몽 역)



1. 이번 오페라는 정말 세세한 부분을 다 체크하면서 배울 수 있던 기회였어요. 서로 맞춰보는 과정 가운데 제게 도움이 될 많은 것을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3막에서 아버지인 제가 알프레도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를 내리 쳐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알프레도역을 맡은 친구와 평소 친한 사이라 화를 내기는커녕 자꾸 웃음이 나와서 조절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고, 무대 리허설을 할 때까지도 2막의 아리아가 도저히 외워지지 않아 무대 뒤의 다른 친구에게 가사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이번 공연을 하면서 후배들이 무대 뒤에서 정말 극찬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제가 원래 테너로 성악을 시작했다가 군대를 마친후 바리톤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바리톤 중에서도 소리가 약간 밝은 편이라 이번에 아버지역할로 연기를 하려니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신 박현재 교수님께서 방학이고

또 바쁜신 가운데서도 일주일 내내 레슨해 주시며 목소리를 맞게 조절해주신 덕에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연습하는 조역 친구들이나 합창만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저도 기다리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진정 하나가 되어야 멋진 오페라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학생신분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여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덕기 선생님께서도 공연하는 동안 박자가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면 지휘를 하시면서 가사까지 같이 불러주셔서 저희가 훨씬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후에는 지도 교수님께서 동작과 발성 등 하나하나 지적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술전문방송에서 취재를 나와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언제 다시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3. 꿈은 그저 ‘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공연 후 꿈은 바로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을 많이 얻었는데,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부담도 컸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공연 후에는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줬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공연 후에는 교수님들께서 한 명씩 다 안아주시며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교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9. 20.)

오페라 사진



슈만페스티벌 & 쇼팽, 온 다

Schumann Festival & Chopin Cometh



낭만시대의 절정을 살다간 두 음악가 슈만과 쇼팽. 올해 이 두 음악가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음대에서는 1학기에 '슈만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슈만의 실내악곡 연주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학기에는 '쇼팽국제학술행사'를 통하여 음대, 미대 그리고 인문대가 하나 되는 다원예술적인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 이 두 행사의 중심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기악과 최희연 교수와 슈만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윤지연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행사의 의미와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INTERVIEW〉

■ 최희연 교수(기악과, 피아노 전공)

1. 이번 슈만 페스티벌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궁금합니다.



슈만 탄생 200주년이 되어 피아노과에서는 슈만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실내악은 최고의 수준으로 급부상하였어요. 슈만은 그에 공헌한 주요 음악가 중의 한 사람이고 그의 실내악작품들은 너무나 훌륭하답니다. 그리고 그의 실내악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은 곧 그의 독주곡들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슈만의 실내악 작품들을 다룰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슈만의 실내악 작품만으로 연주 시리즈를 구상하자는데 쉽게 모든 교수님의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슈만페스티벌은 신입교수이신 아비람 라이케르트 교수님이 앙상을 코치를 지원하는 등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이 아주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악과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피아니스트이자 베를린 음대 보이스 코치이신 조나단 아더 교수를 초청하여 피아노와

성악에 대한 집중 코스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신수정 전 학생님과 현악과, 기악과, 성악과 교수님들이 코칭에 협조해 주셨어요. 앙상블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 조교들의 수고가 많았지요.

이 프로젝트는 연주 무대를 목표로 삼고 코스를 통해 학생들이 연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점과 전혀 관계 없는 프로젝트임에도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였어요. 페스티벌에 대한 청중의 관심도도 높았고 연주 수준도 만족스러웠고, 코칭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하시는 등 페스티벌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실내악 분야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화요음악회와 더불어 이루어진 슈만 페스티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얻기를 바라시는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먼저 커리큘럼으로는 부족한 무대공연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좀 더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음악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바를 캠퍼스라는 작은 사회에서 연습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연습실에서 또 레슨실에서 1:1로 닦고 쌓은 실력은 무대에서 연주되고 청중과 교감하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예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바람은 실내악을 통하여 학생들이 얻게 될 음악적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는 이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조화와 일치의 지혜도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3. 올해는 특히 슈만과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이 두 음악가의 곡이나 인생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낭만주의의 절정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냈고, 또한 위대한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또한 동시에 결코 평범하지 못하고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요. 인간적으로 결함도 많고 그래서 문제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격한 감동은 곧 이들이 겪었던 인간적인 고통의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낭만주의라는 사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두 음악가도 낭만주의의 산물이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특히 예술가들은, 이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 있다고 봅니다. 동감내기였던 이 두 음악가로 인하여 올해는 세계적으로 낭만주의 사조가 특별히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간사에 또 하나의 큰 점으로 남을 지도 모르지요.

4. 앞으로도 여러 공연을 하실 텐데 어떠한 성격의 행사를 기획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현재 10월에 준비 중인 쇼팽국제학술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슈만 2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스케치와 함께 쇼팽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대한 스케치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흔히 이루어지던 마라톤 식 연주 행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찾고자 노력했지요. 그래서 슈만 페스티벌은 실내악을 중심으로, 특히 아직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가곡" 코스를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쇼팽 페스티벌은 음대, 미대 그리고 인문대가 함께 쇼팽을 연구하여 발표하자는 박종화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획하게 되었지요. 사실 이러한 형식으로 세 개 단과대학이 소통하는 것은 처음이라 우려곡절도 많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서로간 소통의 장을 열면서 지적인 시너지 효과가 큼니다. 또한 쇼팽의 고국인 폴란드는 그 발달된 인문학 수준에 비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번 행사를 통해 폴란드와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가 있지요.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폴란드에 대거 진출해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통이 있는 관계이므로 이런 문화적 교류를 통한 사회적인 기여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수많은 토론을 통하여 정해진 쇼팽 페스티벌의 모토는 "쇼팽, 온다"이고 여러 행사 중 2010쇼팽 위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연은 'Chopin in the Campus'로 미대가 무대설치를 담당하고 음대가 연주를 맡은 캠퍼스 연주 시리즈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 미대 교수님께서 "쇼팽"을 마음에 담고 온 캠퍼스를 돌며 연주장을 구상하였고 피아노과 박사과정 팀이 모든 쇼팽 레퍼토리를 찾아내 6회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 피아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주자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쇼팽 국제 콩쿠르 입상 이후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세계적인 신예 피아니스트 쟈넬 양이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원예술적인 무대로는 우리 음대 동문이신 박은희 감독의 한국페스티벌앙상블이 초청되어 쇼팽과 그의 연인 조르주사드의 스토리를 연극과 음악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인문대와 서양음악연구소는 폴란드, 영국, 독일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을 초빙하여 쇼팽을 여러 각도에서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심포지엄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슈만 페스티벌이나 쇼팽 페스티벌 모두 학생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젊음, 시간, 미래... 이런 것들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부러워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자의 인생철학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겠지요. 인생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아낌없이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래요. (2010. 9. 3.)

슈만페스티벌을 통해 느낀점

■ 윤지연(기악과, 바이올린 전공 10)



학교에서 열리는 슈만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슈만의 음악적 색채와 다양한 음악적 해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주를 준비하면서 교수님들께 받았던 레슨을 통해 슈만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음악적 해석과 가르침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주는

Solo가 아니라 실내악이어서

더욱더 새로웠고, 우리 팀이 했던 피아노 파르텔은 현악만 모였을 때에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합쳐져서 나오는 웅장한 소리와 현악과의 조화가 중요했고 피아노와 다른 현악과의 balance를 맞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내악은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하고, 무대에서 연주할 때에는 서로간의 호흡이 중요했기 때문에 혼자 연주했을 때의 집중력과는 또 다른 집중력을 가지고 연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대에서 서로의 눈을 보며 서로의 소리를 귀로 듣고 호흡하며 연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두우면서도 항상 긴장감이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그리고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 슈만의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슈만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행사는 제 대학생활에서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페스티벌이 있다면 꼭 다시 참가해서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2010. 9. 3.)

시각장애인 김상현군 (피아노 전공) INTERVIEW



가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녁이나 밤에 스위치를 잘못 눌러 실내등을 꺼버렸을 때, 깜짝 놀라며 ‘어, 어디 있지?’ 하며 더듬더듬 다시 스위치를 찾는 일.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

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 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더구나 이런 지속적인 어둠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내 분야의 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등 모든일을 해내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지경에 빠질 것인가?

실제로 우리 음대에 그러한 어둠의 순간들을 친구 삼고, 상상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상생활과 전공분야에 열심을 기울이는 학우가 있다. 지난 3월 기악과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한 시각장애인 김상현 군을 만나 보았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53동의 한 연습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실내 공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다. 연습실 복도에 있는 에어컨 앞에 서서 얼음물로 목을 축이고 있는 김상현 군을 발견했다.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니 이제는 적응을 해서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연습실에서 자리를 잡는데 상현군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능숙하게 의자에 앉았다. 기숙사에서 오려면 30분정도는 걸리는데 연습하기 위해 매일 음대 연습실로 찾아온다는 김상현 군과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첫 인상이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올해 입학했는데 한 학기를 지낸 느낌을 듣고 싶어요.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 같아요. 간절히 원했던 곳이고 또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입학하여 학교생활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아요. 도와주시는 교수님과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레포트나 연주해야 할 레퍼토리도 점점 많아져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점자교재를 구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책을 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레포트 쓰기 자체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또 한 장을 작성하는 데에도 보통사람보다 몇 배의 수고를 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가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겪을 어려운 과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피아노 연습도 점자악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눈으로 악보를 읽을 수 없으므로 손으로 일일이 악보를 확인하고 건반치는 일을 수 없이 반복하며 외우는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니 새로운 곡의 연습이 얼마나 힘들것인지 짐작이 간다.

학기를 지내며 학업과 연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슬럼프를 겪는 시간을 보낼 때 쓰는 상현군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첫 학기와 그렇지 알아가는 과정이자 적응기간이기도 해서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15년을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발을 딛는 이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날 것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달아버리고, 더 떨기도 했어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고3때 제 자신을 넘어야 했던 여러 고비와 서울대 입학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지내보니 차가울 것만 같은 서울대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현군은 인터뷰 중간에 ‘생존을 위한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인데, 짧은 시간 안에 어린 학생이 감내해야 했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다.

입학하기까지 상현군과 함께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 그 중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심장’ 이요.

무슨 의미예요?

365일 쉬지 않으세요.(웃음)

상현군은 웃으며 말했지만 순간 몽클했다. 상현군과의 인터뷰 전 어머니와도 전화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때 느꼈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떠올려지며 참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현군도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한다. 이후 연습과 연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곡을 부탁했고, 잠깐 고민하더니 쇼팽의 Etude 10-4를 들려주었다. 곡의 제목처럼 끝까지 추격하는 듯 이어지는 연주가 끝난 후 송글송글 땀이 맺힌 상현군을 보면서, 평소 많이 들으며 좋아했던 Etude 10-4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간절히 원했던 곳에서 (예를 들면 카네기홀) 연주를 하게 된다면 가장 치고 싶은 곡이 무엇인가요?

브람스 랩소디 79-2번이에요.

이유가 있다면요?

이곡은 처음에 무겁게 시작하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웅장하게 끝을 맺어요. 무엇인가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곡이라 생각해요.

상현군은 인터뷰 내내 밝은 웃음과 넉넉한 성격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간중간 걸려오는 선배, 친구들의 전화를 받는 모습은 포레와 다른없는 친진난만한 1학년 학생의 그것이었지만,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도움주시는 교수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그의 표정은 어른스럽게 매우 진지했다. 또한 음악가로서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인터뷰 할 때 스스로를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했던 상현군. 하지만 음악의 세계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면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우리가 오히려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2010. 8. 10.)



콩쿠르 입상자 INTERVIEW

이명현(성악과)
공유림(국악과)

계산하기 어려운 예술적 가치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는 음악도들에게는 실력의 객관적인 평가나 인정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산해 낸다는 것이 아니려니울 것이다. 하지만 완벽을 쫓는 하루하루의 노력이 더 나은 실력과 평가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창조해 내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무한한 가치의 세계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콩쿠르가 있는데, 한 번 입상하기도 어렵다는 콩쿠르에서 2번, 3번의 입상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두 학생을 만나 보았다. 성악과의 이명현(제36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제6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4위, 제5회 신영옥성악콩쿠르 대학 일반부문 남자 대상), 국악과의 공유림(우륵가야금경연대회 1위, 제26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이 그들이다.

▶ 이명현(성악과, 07)

Q1.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노래를 좋아하세요. 어릴 때는 창작동요제 같은 무대에 나가서 열심히 부르고 나면 어른들이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 상을 받는것도 어린 마음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Q2. 성악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면 무언가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마음이 노래로 정화되는 것 같아요. 지난 1학기때 우리 학교에서 열렸던 레나토 부르손이라는 세계적인 거장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었는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넘고 나면 또 다른 도전과제가 생기고 또 그 고비를 넘고 나

면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어요. 저 또한 하면 할수록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번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Q3. 평생 성악가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입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객관적인 성공의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 협연을 하고 어디에서 공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공연기획자나 관계자분들에게 '실력도 좋지만 먼저 인격과 됴됨이가 갖추어져 있어서 이번 공연을 꼭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도교수님이신 박현제 선생님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현재는 공연 전에 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Q4. 현재 준비 중인 공연이나 앞으로의 계획은요?

9월 오페라 공연으로 매일 연습하고 있구요. 지도교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과분하게 많은 관심을 받아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더 실력 있는 성악가, 잘 될수록 겸손한 성악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2010. 8. 20.)

▶ 공유림(국악과, 07)

Q1. 요즘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의 승부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더 의욕이 생겼어요. 물론 무대를 준비

하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좋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았다는 감동과 함께요. 이전의 승부욕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

각이 들어요.

Q2. 가야금을 하게 하는 원동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기도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무대에서 악기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내는 '연주'가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힘들어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라고 자꾸 격려하려고 해요. 이전 보다 더 강해지려는 마음도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Q3. 실제적인 나이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느끼세요?

지금은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동시에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살아있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숨쉬는 그런 연주, 기존의 연주와 좀 다르더라도 새롭게 느껴지는 참신한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제 연주나이는 아직 혈기왕성한 10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조금 차분하고 연륜이 느껴지는 연주를 하고 싶기도 해서 이러한 고민을 지도교수님께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나중에 40~50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연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파워 있는 연주를 유지하되 갈수록 삶의 경험이 녹아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인격이나 내공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Q4. 현재 준비 중인 공연이 있거나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요?

1학기에 가야금 콰르텟 '나루'와 국립극장에서 협연을 했어요. 또 저의 간절한 소원 중의 하나였던 모교(국립국악고)의 '수상자 초청공연'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더 큰 공연에서보다 후배들 앞에 선다는 것이 더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독주회를 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번 가을에 열리는 국악과 정기연주회에 오디션을 통해 솔리스트로 나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하며 후배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고, 선배님들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겸손한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잘 챙겨주시면서 항상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이지영 선생님과 같은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2010. 8. 19.)

음악대학 단신

SNU Celli Ensemble
Summer Music Academy
Summer Viola Workshop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
음악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학과통합사무실 신설
삼익악기 회장 감사패 수여식 등

▶ 백청심 교수와 SNU Celli Ensemble



• 연주자 명단 : 백청심 강희운 이태인 구희령 박유라
조윤경 현세은 허정인

기악과 백청심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SNU Celli Ensemble은 지난 7월 17일 독일 Dusseldorf의 Full Gospel Christengemeinde홀과 7월 22일 Kulturstiftung Wasserburg성의 Konzertsaal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백청심교수와 SNU Celli Ensemble은 2000년 여름 서울에서의 연주를 시작으로 독일 Mainz의 Rheinland-Pfalz-Tag 2000 Festival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한 바 있으며 H. Villa-Lobos의 Bachianas Brasileiras No.1 No.5가 수록된 CD를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독일에서는 W.Fitzenhagen의 Concert-Walzer와 Lindemann의 Mambo, Sibelius의 Finlandia, Piazzolla의 Otono Porteno 등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0월 31일 오후 3시 예술관(49동) 콘서트홀에서 1985년에 작곡한 첼리스트 怪丁조현진의 천재적인 예술적 행적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리사이틀을 갖게 된다. 곡목은 Faure의 Elegie, Brahms의 sonata in e minor, Dvorak의 Waldesruhe와 Rondo, Bruch의 Kol Nidrei이며, 협연에는 피아노과 주희성 교수이다.

▶ 김영욱 교수의 Summer Music Academy



2010년 7월 26일에서 8월 7일까지 12일 동안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작곡과 오희숙 교수) 주최로 기악과 김영욱 교수의 제5회 Summer Music Academy가 열렸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총 19명의 수강생들은 오전 10시부터 50분 간격으로 3~4회의 레슨을 받았으며 매일 많은 청강생들이 레슨실을 찾았다. 우수학생 연주회는 8월 6일과 7일 양일간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는데 하승리(서울대) 외 총 8명의 수강생이 출연하였다. 8월 7일 오후 수료식 및

‘김영욱과의 대화’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제3회 “Summer Viola Workshop”이 2010년 7월 19일 ~7월 30일, 11일간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작곡과 오희숙 교수) 주최로 개최되었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20명의 수강생들이 오전 10시부터 50분씩 예술관 실내악실에서 3~4회의 공개 레슨을 받았다. 30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19명의 수강생들이 각자 준비한 레퍼토리를 연주하여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이 날 수료식과 “최은식과의 대화”로 워크샵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

지난 4월 24일(토) 오전 11시부터 제3회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가 열렸다. 식전 행사로는 음대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음대건물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대를 빛낸 음악인들과 각 과의 정기연주회, 강의내용과 연구소 소식, 그리고 해외 음악원들과의 교류내용 등 음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도서실과 전자음악실, 국악 관현악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들을 탐방하였다.

음대 행사로는 2시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악연주단의 공연과 갈라콘서트가 준비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국악연주에서는 표정만방지곡(집박: 권용현)과 연주단의 시나위 공연이 있었으며 갈라콘서트에서는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서울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가야금의 합동연주, 음대 성악과 합창단과 Brass Band의 협연이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켜 많은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학부모 초청행사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서울음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음악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30일(월)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2009학년도 음악대학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박사 2명(음악학1, 협동과정음악학1), 석사 14명(음악학), 학사 31명, 총 47명이 학위를 받았다.

☞ 홈페이지 새 단장

음대의 각종 소식과 행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대 홈페이지의 새 단장이 이루어졌다. 여러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경쟁과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개편은 실기지도실 예약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전체 공지사항의 효과적인 전달과 공연사진 및 영상 게재에 그 목적이 있다.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10월 20일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열리게 된다. <http://music.snu.ac.kr>

☞ 학과통합사무실 신설

학과간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음대에서는 학과통합사무실을 구축하였다.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학과행정 및

교수, 학생지원 업무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음악대학 인사 (2010년 3월 이후)

전입

행정실 교무주임	이정화 (4.19~)
학과통합사무실	문태정 (7.20~)
행정실 교무	이은영 (4.19~)
예술관 운영실	이호영 (9.1~)

전출

명예퇴직	이윤숙 (8.31)
공과대학	김학건 (4.19~)
언론정보연구소	성미자 (7.20~)
정보화본부	오미경 (4.19~)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

54동 3층에 마련된 학생휴식공간 테라스 '여음'은 '학생휴게실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총 29개의 이름이 수집되었으며, 학생들의 인기투표 결과 다수득표 3순위가 정해졌고, 이들 중 교수들의 최다득표 이름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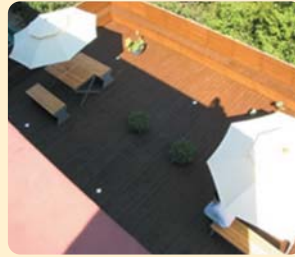
‘여음’ (餘音)

‘여음’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가 그치거나 거의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음향’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3대 성악곡 중 하나인 ‘가사’에 ‘여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래의 시작 전이나 중간에 노래는 쉬고 반주만 연주되는 부분입니다.

음대 휴게실은 일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학교생활 가운데 있는 ‘여음’이었으면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노래를 위해 반주를 들으면서 쉬어가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잠시 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사는 소리가 잔잔히 남아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54동 3층 학생휴식공간1



54동 3층 학생휴식공간2 (테라스 '여음')



54동 2, 3, 4층 파우더실 및 정보검색실



학장실1



학장실2



소회의실



220동 작곡과 이론전공 학생 상담실



54동 4층 개인연습실



53동 강의실

❶ 삼익악기 회장 감사패 수여식



음대에 ‘삼익악기 · 스펙코 학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5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삼익악기 김중섭 회장(본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감사패 수여식이 지난 31일(화)에 음대 교수휴게실에서 열렸다. 음대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 음대학장의 축사와 삼익악기 회장의 답사 그리고 음대학생들의 축하연주로 이어졌다. 식후에는 다함께 다과를 나누며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김중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음악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교육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발전기금 출연

김정자 명예교수(국악과) 발전기금 출연



김정자 명예교수(국악과)가 지난 4월 7일 발전기금 3,000만원을 출연하였다. 이 기금은 '동은 이창규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학년 가야금 전공실기우수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선연장학재단(이사장 조용선)

기악과 관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은 2010년도 2학기에 7명에게 지급된다. 선연장학재단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오토젠이 2008년 12월에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이사장님의 두 자녀(조연신(93년卒), 조윤신(95년卒)) 모두가 기악과 동문이다.

신수정 초빙교수(기악과) 발전기금 출연



지난 6월 23일 신수정 초빙교수(전 음대학장)가 발전기금 총 5,000만원을 출연하였다. 신수정 초빙교수는 지난 2007년에도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김영률 교수 발전기금 출연



김영률 교수(기악과 장)가 발전기금 1,000만원을 출연하였다.

KAG 발전기금 출연



KAG(대표: 유홍준, 성악과 89년卒)에서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500만원에 해당하는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하였다.

내한공연에서 호세쿠라와 함께 협연했다. 그리고 6월 17일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오페라 '이올란타'에 출연하였다.

서혜연 교수, KBS 열린음악회 출연

서혜연 교수는 지난 3월 21일 KBS홀에서 개최된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제519회 KAIST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소프라노 서혜연 리사이틀'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박현재 교수,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라 트라비아타' 출연

박현재 교수는 지난 3월2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안중근열사 순국100주년 기념음악회'와 5월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아름다운 우리노래 한국가곡의 밤'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남자주인공 알프레도 역을 맡았으며, 7월2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남자주인공인 타미노역을 맡아 출연하였다.

연광철 교수,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에 출연

연광철 교수는 지난 5월 이태리 라 스칼라에서 새롭게 제작된 '라인의 황금'의 파줄트역으로 출연하였다. 그리고 7~8월에는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에서 '파르지팔' 구르네만츠역, '발퀴레'의 훈딩역을 맡았으며, 8월 29~31일에는 아르헨티나의 콜론극장에서 개최된 베르디레퀴엠과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에 출연하였다.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윤현주 교수, 예술가곡의 향연 '내 마음의 노래' 출연

지난 4월 14일 이화여고 내 백주년기념관 화암홀에서 예뻐와 함께하는 우석문서선교회 후원 음악회 '무엇이 사랑입니까'에서 윤현주 교수는 서울음대 남성중창단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예술가곡의 향연 '내 마음의 노래'에 출연하였다.

박미혜 교수,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박미혜 교수는 지난 5월 2일 내장산 국제음악제 '라 트라비아타' 하이라이트 콘서트에 비올렛타 역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김신환 국제성악콩쿠르 설립기념 음악회 '위대한 성악가들'에서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협연하였다.

박세원 교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세원 교수는 지난 6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노래 나그네 故오현명 선생 1주기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2006 한국음악공로상, 2008 경기음악대상 등을 수상한 중앙오페라단과 함께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지난 7월 10~13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주인공인 알프레도 역을 맡아 공연하였다.

김인혜 교수, 테너 호세쿠라 내한공연 협연

김인혜 교수는 지난 5월 4일 고양시 아람누리 콘서트홀에서 열린 세계적인 테너 호세쿠라

작곡과

정태봉 교수, 제20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서 교향시 '남해(南海)'(2010) 초연

지난 6월 22일 정태봉 교수는 제20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서 교향시 '남해(南海)'(2010)를 초연하였다.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국내·외 작곡가들의 작품교류를 통하여 현대의 작곡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음악제로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돈웅 교수,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ICMF)2010'에서 작품 발표

이돈웅 교수는 지난 9월 5일 한국전자음악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프랑스대사관, 독일문화원 등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ICMF)2010'에서 'amusement' for Flute, Clarinet and Live Electronics를 발표하였다.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는 9월 2일~5일 4일

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음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컴퓨터음악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신우 교수, '2010 서울국제음악제'에서 클라리넷 협주곡 초연

이신우 교수는 지난 5월 31일, 연주자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순수 음악예술 교류를 통해 국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서울국제음악제에서 클라리넷 협주곡을 초연하였다.

전상직 교수, '국악기와 서양현악앙상블을 위한 협주곡의 밤'에서 작품 초연

전상직 교수는 9월 10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국악기와 서양현악앙상블을 위한 협주곡의 밤'에서 최혁재의 지휘와 이진희의 피리, 그리고 서울 클래식플레이어즈 현대음악앙상블(SCP Modern)의 연주로 '피리와 현악합주를 위한 線-IV'을 초연했다. 그리고 9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모테트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삶의 노래, 영혼의 노래'에서 신작 'Magnificat'를 발표했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국제컴퓨터음악 페스티벌 concert no.5'에서 작품 초연

Roland Breitenfeld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주한독일문화원 내 Goethe-Institut에서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사랑과 삶의 윤희' 음악회에 참여하였다. 라이너 쿤체의 텍스트를 음악화한 '위로를 모르는 시조(Sidcho, das Keinen Trost Weis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시 5월 9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다. 그리고 9월 5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국제컴퓨터음악 페스티벌 concert no.5'에서는 그의 작품 'Moments of Darkness' for bass-trombone and live-electronics (version 2010)가 초연되었다.

기 악 과

김영률 교수,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4회 정기연주회' 참여

김영률 교수는 지난 6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4회 정기연주회'에 호른주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로스 목관5중주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수석주자 및 교수들에 의해 창단된 단체로 다양한 연주회 및 방송출연을 해왔으며 외교통상부 파견 클래식 연주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최은식 교수,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연주

지난 5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의 꽃인 실내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스

프링실내악축제'가 열렸다. 최은식 교수는 슈베르트 피아노5중주 '송어'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첼리스트 양성원 등과 함께 연주하였다.

최경환 교수, 타악그룹 '4 Plus 16회 정기연주회' 참여

지난 5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가 열렸는데, 최경환 교수가 열정적인 지휘로 연주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7월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타악그룹 '4 Plus의 16회 정기연주회'에 참가하였다.

이경선 교수,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에서 협연

지난 4월 5일 이경선 교수는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에 참여하여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5번',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5번' 등을 협연하였다.

주희성 교수, 슈만 탄생 200주년기념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주희성 교수는 지난 7월21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이어서 29일에는 Berli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hamber concert에서 실내악 연주를 하였고, 8월 20일에는 Beij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aster's Gala piano concert에 출연하였다.

윤혜리 교수, 금호아트홀 '그레이트 아티스트 시리즈1' 참여

윤혜리 교수는 지난 9월 2일 금호아트홀에서 악기별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는 '그레이트 아티스트 시리즈1'에 참여하여 플루트 독주회를 열었다.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등의 전속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호지 레이코와 함께 20세기 초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백주영 교수, 차이코프스키 탄생 170주년 기념공연 연주

지난 5월 26일, 국제적 음악축제인 '서울국제음악제'가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백주영 교수는 음악을 통한 화합과 국제교류를 목표로 하는 실내악 연주회 'SIMF Special Chamber Concert 낭만의 시대'에서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클라리네티스트 미셀 레티엑 그리고 첼리스트 리웨이와 함께 무대를 장식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차이코프스키 탄생 1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페셜 시리즈로 꾸며진 대전시향과의 무대에서는 '시벨리우스 & 차이코프스키 걱정과 비창'이라는 주제로 연주하였다.

아비람 라이커트 교수, 금난새와 함께하는 '라흐마니노프 여행' 출연

지난 3월 1일-13일 아비람 라이커트 교수는 Grand Rapids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USA 미시간 콘서트 투어에 참가했다. 그리고 5월 14일 부천시향과 함께 소렐 콘체르토 1번을 협연하였고, 9월 11일에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을 협연하였다.

국 악 과

임재원 교수, 제10회 대금독주회 개최

임재원 교수는 지난 5월 14일 부산고은미술관 초청으로 대금 독주회를 열었다. 사진과 함께 대금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독주회에서 임재원 교수는 대금산조와 청성곡 등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작곡가 강은수의 '아버지의 정원' 발표회에 참여하여 연주하였고, 4월 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김영기 여창가곡 독창회'에 이지영, 양경숙 교수와 함께 연주하였다.

정대석 교수, '국악관현악 명곡전' 시리즈에서 거문고 협주곡 협연

정대석 교수는 지난 4월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신선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국악작곡가들의 거문고 협주곡들을 협연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황병기)이 2006년부터 기획하여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국악관현악 명곡전' 시리즈 "명인의, 명곡을 위한 명품연주"에서 자신이 작곡한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를 직접 연주하였다.

이지영 교수, The Pacific Rim Music Festival, CHAMPS Livres Festival 가야금 초청연주

이지영 교수는 지난 3월 3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농악회 전통음악연주회'와 6월 3일에 열린 '금암가야금산조보존회 정기연주회'에 참여하여 가야금 독주를 하였고, 4월 22~23일과 26~27일에 걸쳐 미국에서 열린 'The Pacific Rim Music Festival'과 6월 12~13일에 프랑스에서 열린 'CHAMPS Livres Festival'에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김승근 교수,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날개)' 참여

김승근 교수는 지난 9월 30일 KMP(Korean Music Project)의 주최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날개)'에 참여하여 KMP와 함께 연주하였다. 이 음악회에서는 작곡가 윤혜진, 김난국, 유리나의 작품들이 초연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문의:** 음악대학 학장실 02-880-7900 /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872-4149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28호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우151-818)

〈음악대학 회원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이다. 회원에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음대소식지 우송
- 프렌즈 회원 카드 배송

■ 회 비

- 1년 회비: 10만원

농협 079-01-469806(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02-880-93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쿠르 입상 소식〉

| 성악과 |

- 제36회 중앙음악 콩쿠르 1등 이명현(4년)
- 제6회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2등 이응광(졸업), 4등 이명현(4년)
- 제5회 신영옥성악 콩쿠르 대학 일반부문(남자)대상 이명현(4년)
- 제2회 세일한국가곡 콩쿠르 남자부문 1등 이승수(석사), 여자부문 1등 없는 2등 황수미(석사)

| 작곡과 |

- 9th “Michele Pittaluga” International Classical Guitar Composition Competition 1st Prize 강경목(석사)

| 기악과 |

[피아노]

- 제36회 중앙음악 콩쿠르 2등 하주애(4년), 3등 하동완(4년)
- 호로비츠 콩쿠르 1등 김고운(03)
-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대상 한희준(2년), 2등 하동완(4년), 3등 최현호(3년)

[관 악]

- 제36회 중앙음악 콩쿠르 1등 유 청(4년, 클라리넷), 2등 윤보라(3년, 클라리넷)
- 음악협회 콩쿠르 황수진 2등(4년, 타악기)
- 부산음악콩쿠르 김예성 1등(1년, 플룻)

[현 악]

- 제36회 중앙음악 콩쿠르 입상 1등 현세은(2년, 첼로), 2등 김민승(3년, 첼로), 2등 김유은(4년, 바이올린)
- 부산음악 콩쿠르 1등 조윤경(3년, 첼로)
- 센다이 국제콩쿠르 4등 및 청중상 김봄소리(3년, 바이올린)

| 국악과 |

-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학생부 대상 김자은(2년)
- 우륵 가야금경연대회 1등 공유림(4년)
- 춘향국악대전 입상 가야금 일반부 최우수상 김 린(4년)
- 제26회 동아국악콩쿠르 금상 김소진(4년, 판소리), 은상 공유림(4년, 가야금), 김대곤(4년, 대금), 정겨운(4년, 해금), 동상 박진형(4년, 피리), 안건용(3년, 대금)
-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부문 금상 김대곤(4년), 동상 윤태림(3년)
해금부문 금상 정연주(석사), 은상 양희진(석사)
정가부문 은상 안정아(3년)
가야금부문 금상 양수연(석사), 은상 윤도희(석사)
거문고부문 금상 김지수(3년)